

# 나주시,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경로당 만든다

읍면동 대표 경로당 20개소  
양방향 화상 시스템구축 등  
디지털 소외 어르신 활력 증진  
관내 노인 64.8% 경로당 이용중

나주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3억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핵심인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경로당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에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주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는 현재 읍·면·동 20곳에서 619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전체 노인 인구 2만8254명 중 1만8315명(64.8%)이 경로당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읍면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 6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무료함', '정보 취약'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이 전체 약 95%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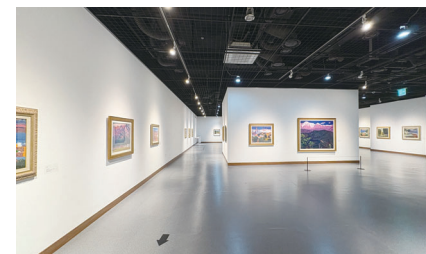
디지털 정보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라고 답해 단기적 지원보다는 '정보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적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먼저 읍면동 경로당 20개소에 스마트 텔레비전 등을 보급하고 비대면 여가·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방

향 화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3억1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2026년에는 전체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공간인 경로당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강한 노년,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겠다"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특별 기획전 '백화난만(百花爛漫)' 함평군립미술관, 12월 1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이 지난15일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를 기념하는 전시회 '백화난만(百花爛漫)'을 개막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예향 전남의 거장 김영태, 김형수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제작한 대표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조선대학교미술관과 여러 개인이 소장한 작품 총 68점을 엄선했다.

김영태 작가는 1927년 함평 출생으로 전남의 첫 미술대학인 조선대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김영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각광받는 세계적인 작가로 구상회화를 고수하면서도 유연한 시각과 기법으로 후학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전남 미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평생 작품 활동을 이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최근 작품도 함께 공개했다.

김형수 작가는 1929년 해남에서 태어나 한국화의 대가로서 전통 회화의 기법을 계승하며 진경과 사경 산수화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진경과 사경 산수를 넘나들며 깊이 있는 화면구성과 수묵 담채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한국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화풍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그의 대표작 또한 이번 전시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약 100년에 가까운 역사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작가의 길을 걸어온 두 분의 삶과 예술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화난만은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흐드러진 모습을 뜻한다. 백수(白壽)의 삶과 작가의 길을 걸어오신 두 분의 여정과 닮았다.

**함평=신재현 기자**

## 수확기 농산물 절도예방 활동 장성읍내파출소, 사전 범죄 예방

장성경찰(서장 배상진) 읍내파출소에서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최근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산물과 저장창고 및 빈집절도 예방 협력 방법활동을 실시했다.

16일 장성경찰 읍내파출소에 따르면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가 늘어나는 시기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관내 모든 이장들에게 농기계 사고 예방 및 농산물 보관창고 절도예방 문자를 발송해 사전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농번기철 수확물을 가져가는 등 우발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등 강제로 출입구 등을 개방해 절도를 하게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화순군, 가루쌀 첫 수확 수입 밀 대체 전량 공공비축

화순군은 올해 첫 재배한 가루쌀(바로미2)을 한천면 조규명 농가에서 지난 11일 첫 수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7개 농가에서 5.8ha 재배했으며 총생산량은 약 40톤 규모로 추정된다.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밀 대체 가공 제품으로 활용을 위해 전량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될 계획이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제분하여 빵, 라면,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쌀로 일반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밀을 대체하여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작물이다.

올해 첫 재배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육 단계별 현장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6회를 추진하며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제11회 창평 전통음식 축제 담양군, 25일부터 26일까지

담양군은 창평면에서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2024 제11회 창평 전통음식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맛과 전통의 멋 그리고 삶의 여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알찬 축제로 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6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창평면은 행사장 조성을 위한 경관과 기반 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평항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25일 오전 11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트로트 신동 김성록을 비롯해 각종 축하 공연이 열리며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음식경연대회 등의 마을 잔치 한마당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판매 공간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도 조성했다.

보물찾기와 행운권 추첨,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음식 시연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 행사장을 채운다.

박종봉 창평면 축제추진위원장은 "전통과 느낌의 미학이 있는 창평면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축제를 구성했다"며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담양군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난 12일 나주 영산강정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우리가족 요리왕 선발대회'에 서울, 대전 등 전국 20개팀이 참가해 요리실력을 겨뤘다. **나주시 제공**

## 나주영산강축제, 요리왕 선발대회 성황

지난 2024 나주영산강축제에서 펼쳐진 요리 경연대회가 영산강 정원 관광객들을 맛과 멋의 향연으로 초대하며 성공적인 축제 통합행사로 자리매김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영산강정원 잔디광장에서 서울, 대전, 광주, 나주 등 전국 20개 팀이 참가한 '우리가족 요리왕 선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분식&디저트'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나주의 농특산물과 나주관광 10선을 테마로 한 요리 경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명칭에 맞게 현직 요리사나 전문가가 아닌 전국의 요리 마니아, 가

족, 친구 등이 각각 팀을 이뤄 참가했고 관광객들이 맛을 직접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전·현장 접수를 통해 모집한 20명의 평가단은 주제 적합성과 완성도, 위생·조리과정, 맛과 영양성, 창의성 및 보급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영예의 대상은 광주시 이보람 씨(38) 팀이 요리한 '나주배 맛 보러 오! 새우'가 차지하며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요리는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로 만든 배 소스를 곁들인 새우, 초당옥수수불튀김과 막걸리 하이볼, 배 슬러시를 후식 메뉴로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홍어튀김과 옥수수 디저트를 선보인 장승기(31)씨, 한우와 옥수수를 결합한 버거와 토마토 스프를 요리한 김선우(19)군이 우수상 수상 기쁨을 누렸다.

대회 부스에선 나주배, 영산포 숙성홍어, 나주쌀로 빚은 막걸리 시식과 나주농특산물로 만든 인절미, 오란다 등 디저트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초록빛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요리대회는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주 농특산물의 가능성과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다"며 "맛과 더불어 나주의 관광지 홍보와 축제 관광객들에게 오감만족 기회를 제공해준 대회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곡성군, 걷기 지도자 양성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주민 맞춤 프로그램

곡성군은 곡성읍 건강증진센터에서 곡성군 걷기지도자 15명을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 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워킹 교실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별 전담 걷기지도자를 양성해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방법과 자세, 하체운동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이 종료되면 걷기지도자는 마을 주민을 위한 걷기 지도와 건강 걷기 홍보 캠페인 전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노르딕 워킹'을 관절보호와 근육단련을 위한 재활 치료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건강증진센터(061-360-8958·8953)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

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곡성읍 권역에서는 요가와 실버 매트 체조, 전신 순환운동 등 9개 프로그램을, 석곡권역에서 실버 필라테스와 노래교실을, 옥과권역에서는 실버 에어로빅과 요가·댄스 프로그램을 각각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10월 현재 총 400여 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58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곡성=김대영 기자**